

현장 대신 유튜브... 코로나에 '비대면 선거운동' 확산

민주당, 대면접촉 선거 전면 중단
통합당·정의당, 선거운동 자제령
비대면 선거운동 유튜브로 진행

21대 총선이 50여 일 남은 가운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으로 선거 운동 풍토가 바뀌었다. 사람과 직접 만나는 선거 운동 특성상 코로나 19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은 코로나 19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추세다. 이들이 지난 5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과 악수하거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여는 등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는 방식의 선거 운동은 자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기조에 '대면 접촉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다. 민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24일)부터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대면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 선거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낙연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는 22일 '비대면 선거운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비대면 선거운동은 이 예비후보

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예비후보 캠프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사태 안정기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대면 선거 운동을 자제하고 비대면 선거 운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과 정의당도 각 예비후보에게 선거 운동 자제령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인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24일) 통합당 주요 당직자가 코로나 19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해당 인사와 접촉이 있었던 모든 주요 당직자 감염 여부를 의료기관에서 검사토록 하는 절차를 안내했다. 저 또한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 절차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선거 운동을 중단하는 한편,

관련 정보에 대해 공유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전제수 의원은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주부터 부산 지역은 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나"며 "시당 차원에서 방역 활동이나 확진자 진료와 관련한 예산 확보 문제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서울 송파구를 배현진 예비후보도 같은 날 본지와 통화에서 "저희 지역에서 2번째 확진자가 나와서 동네 심리가 바짝 움츠렸고, 지난주부터 (선거 운동을) 사실상 접었다"며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주민들 염려가 큰 만큼 코로나 19 관련 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전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中 유학생 입국시작... 대학 "관리·보호 총력" "코로나로 신음하는 협력사와 상생"

매일 발열 체크·이동동선 파악
교육부 휴학 권고에 재정타격 우려

국내 대학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 입국이 시작됐다. 대학들은 공항까지 가서 입국하는 유학생을 픽업해 자율격리 기숙사로 이동시키고, 매일 유학생들의 발열과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등 유학생 관리·보호 방안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가 중국 유학생 휴학을 권고함에 따라 이들이 대거 휴학에 나설 경우 대학의 재정 타격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은 올해 1학기 개강을 1~2주씩 연기한 가운데, 입국을 원하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개강 2주 이전에 입국해 자율격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 대학은 개강일을 기존 3월 2일에서 9일이나 13일 등으로 1~2주 연기한 상태다. 국내 중국인 유학생 7만여 명 중 3만여 명이 이미 입국했고, 나머지 3만 8388명은 아직 입국하지 않았다.

대학들은 입국 유학생에 대해 공항에서 격리장소인 학교 기숙사 등으로 이송하고, 학교 시설 외 거주하는 유학생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자 안내소에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대해 1일 1회 발열과 상태 점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이 3330명 규모에 달하는 성균관대는 수원시 협조로 공항에서 유학생을 시정 버스에 태워 자연과학캠퍼스 기숙사에 1인 1실 입주시켰다. 학교 기숙사 입주 인원은 전체 인원 중 약 10% 정도로 학교는 예상하고 있다. 학교 인근 원룸 등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아르바이트생 10여명을 고용해 1인 1회 발열 체크와 현재 상태,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희대는 유학생들은 자율격리 기간과 학기 시작 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기숙사 입소토록 하고 있다. 양 캠퍼스 내 기숙사 건물 각 1개 동을 중국 학생 격리 공간으로 마련해 화장실이 딸린 1인1실을 배정하고 도시락과 생활필수품도 지원해 외부 출입을 제한한다.

기숙사 내부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체온계도 비치해 발열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교직원들은 하루 24시간 기숙사에 함께 거주하면서 학생들을 관리할 예정이다.

연세대는 이달 28~29일, 한국외대는 27~29일 격리 대상 학생들을 기숙사에 입소시킬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

LG전자, 코로나19사태 간담회
마스크 공급·항공 운송비 등 지원

LG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신음하는 협력사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LG전자는 24일 경기 화성 유양디앤유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LG전자 이시용 구매경영센터장과 주요 협력사 대표가 참석했다.

LG전자는 간담회에서 최근 코로나 19가 협력사 원재 수급과 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확인하고, 마스크 공급과 항공 운송비 지원 등 긴급 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협력사가 긴박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금 운영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는 무이자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무이자 자금 규모를 종전 4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자금 일정도 전년보다 4개월 빠른 이번달 중으로 크게 앞당기기로 했다. 협력사가 설비 투자와 부품 개발을 하는데 주력하고 경영 안정



LG전자 김태용 동반성장담당이 상생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LG전자

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특히 LG전자는 생산 기지 '유티'를 준비하는 협력사에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로 나갔던 협력사가 국내로 복귀를 결정하거나, 국내 생산 기지 비중을 더 높이기로 하는 경우다. 컨설팅은 물론이고 무이자 자금과 구매 물량 보장 등을 유인책으로 내놨다.

LG전자 이시용 구매경영센터장은 "협력사가 안정된 경영을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상생의 핵심"이라며 "협력사가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코로나19에 울고 웃는 산업계

일부 업종 긍정적... "실익 크지 않을 것"

상반기 디스플레이 업계 대박기대
"눈 앞 이익보다 장기적 타격 우려"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산업계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상반기 디스플레이 업계 대박을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중국을 강타하면서 현지 LCD 패널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LCD 패널을 절반 이상 생산하는 곳이다. 코로나19로 생산능력이 10~20% 떨어졌고, LCD 패널 가격도 10% 가량 상승했다고 알려졌다. LCD 패널 생산 공장을 계속 가동 중인 국내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게된 셈이다.

가전 업계도 실제 수요 감소는 크지 않다는 전언이다. 전년 대비 일부 감소가 나타났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반도체를 향한 기대도 나온다. 공급

이 둔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는 논리다. '중국 반도체 굴기'도 힘을 내지 못하게 됐다며 상대적 호재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근시안적인 해석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당장 보이는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당장 반도체는 수요 감소가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전자 제품 생산량을 크게 줄인 때문이다. 글로벌 서버 시장 성장 전망도 잇따라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인천 사업장 폐쇄... 직원 임시격리

연구원 중 한명, 확진자 가족 확인
국내 5대 대기업 중 3곳 비상 사태

LG전자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SK하이닉스도 청주사업장에서 또다시 밀접접촉자가 발생했다.

LG전자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사업장을 폐쇄하고 전 직원을 임시 격리 조치했다. 한 연구원이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으로 확인되면서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도 지난 주말 직원 3명이 확진자 택시를 타고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이와 관련한 23명을 추가 격리 조치하고 사무실을 방역했다.

국내 5대 대기업 중 3개가 코로나19

로 비상 사태를 겪은 셈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구미사업장을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했고, SK하이닉스는 인천사업장에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일부 건물을 폐쇄조치한 바 있다.

다행히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생산 차질은 없는 상황이다. LG전자는 VS(전장) 연구 시설인 데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잘 갖춰놓아 재택 근무 등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 상태다.

LG전자 관계자는 "폐쇄 사업장이 연구 시설인데다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용해 업무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의심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업무는 예상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